

北 “남북관계 전면 차단” 경고

“존엄 훼손땐 중대 결단”…개성공단 사업 등 강경조치 가능성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

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포함해 각종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비리”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의 이번 논평원의 글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 1일 논평원의 글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다.

논평원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짓밟고 남조선을 과거 독재시기

로 되돌려 놓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우분자들이 괴뢰 정권에 들어 앉아 있는 이상 북남 관계가 정상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이 본격 제기된 이후

남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 “작전계획 5029”, 각종 학교 학생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독일 통일 18주년과 북한 정권수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14일부터 평양 모란봉 공원에서 베를린의 상징인 ‘버디 베어(Buddy bear)’상 18개를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베이징 방문

23~25일 아셈 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제7차 ASEAN(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번 ASEAN 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16개국,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등 43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와 EU 집행부, ASEAN사무국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국제 사회의 주요 한인과 국제 금융위기 문제와 최근의 남북한 관계, 북핵 사태 등에 대해 발언할 것이라고 청와대 층이 전했다.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 기간 폴란드, 덴마크, 베트남 등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프랑스와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연쇄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와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는 ▲국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아시아·유럽 간 무역·투자 활성화 등이며, 회의 뒤에는 의장 선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베이징 선언’ 등이 채택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新 브레튼우즈 체제’ 구축 가시화

G8 곧 뉴욕서 회동 새로운 자본주의 논의

미국과 유럽이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데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금융 자유시장의 병폐를 척결해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선진 8개국(G8)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G8)

서 “G8 정상들이 조만간 적절한 시점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G8 특별 정상회담에서 “21세기가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 문제를 다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날 브뤼셀에서 이를 일정으로 시작된 EU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대개를 위해 처음으로 온행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날 EU 정상회담에 앞서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책 회담이 “빠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회동에서 “제 2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동이 내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것과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